

肝炎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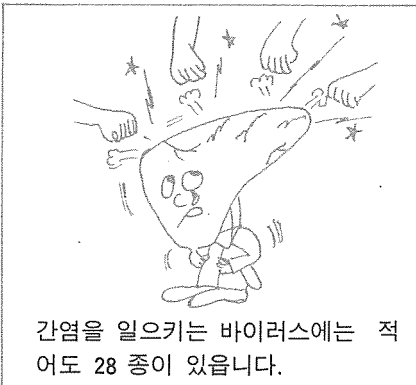
간염

간염은 치료될 수 있습니다.

■ 간염이란?

간염이란 말 그대로 간세포 조직의 염증을 의미합니다. 간에 생기는 질병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급성 바이러스간염, 만성지속성(慢性持續性), 간경변증(肝硬變症) 및 간암(肝癌)을 들 수 있습니다.

간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의 대부분을 우리는 쉽게 A형, B형이라 부르고 최근에 A형도 B형도 아닌것이 밝혀져 이를 非A, 非B형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 A형간염

A형간염은 장티푸스나 콜레라처럼 입으로 옮는 전염병입니다.

가장 흔한 전염병은 우리가 먹는 음식이나 음료가 환자의 대변에 의해 오염되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A형간염 바이러스는 환자의 대변속에 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잠복기(즉, 발병이전)의 마지막 3주일간에만 대변속에 나타나고 일단 발병이 되면 대변에서 바이러스는 없어집니다.



A형간염 바이러스가 혈액(血液) 속에 있는 시간은 더 짧고 황달등 증세가 나타나기 훨씬전에 없어집니다. 즉, A형간염환자에서는 그 잠복기 끝무렵에 바이러스가 체외로 나와 탄 사람에게 전염을 일으키는데 열이나 산처리로 잘 죽지 않기 때문에 전염성이 강합니다.

그러나 이 바이러스에 일단 걸려도대부분에서는 간염증세가 나타나지 않고, 아동기에는 그저 배탈이 난 것으로 간주되어 넘겨지기가 보통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 청장년(어른)이 되면 그 증세가 심하여 흔히 오심, 구토, 오른쪽상부복통, 황달등 증세를 보이게 됩니다. 중증이 되어 사망하는 율은 전체 환자의 1%이하입니다.

A형간염은 만성으로 되는 경우도 없고 간경변증도 가져오지 않습니다. 예방 백신은 현재 없고 개발중에 있으며 감염이 염려되면 면역혈청(감마브로브린)을 주사합니다.

●B형 간염

B형바이러스는 주로 간(肝)과 혈액(血

液)속에 많이있지만 체액이나 분비물을 통해서 나올 수 있기때문에 수혈이나 점촉에 의해서도 옮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B형바이러스 양성인 사람의 모든 분비물에서 바이러스가 나온다고 생각해도 틀림없습니다.

즉, 타액, 눈물, 모유, 월경혈, 정액, 소변 및 복수(腹水)라든지 척추액(脊水液)관절액(關節液)등에서도 증명됐기 때문에 B형바이러스는 여러 경로로 전염될 수 있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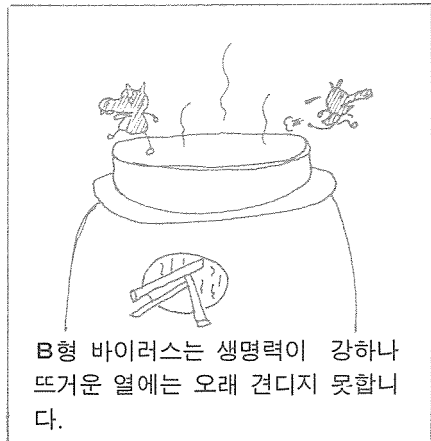
또한 B형바이러스는 생명력이 끈질겨서 웬만한 온도나 습도에는 살아 견디고 화학물질로도 잘 죽지 않습니다. 영하 20℃에서 15년, 실온에서 6개월간 그리고 60℃에서 4시간 유지합니다.

그러나 뜨거운 열에서는 견디지 못하며 10분만에 죽어 없어집니다.

요즈음 B형바이러스는 검출방법은 R-PHA(역수신 적혈구 응집반응)라는 간단한 혈액검사를 통하여 감염여부를 알아 낼 수 있습니다.



B형 바이러스는 간과 혈액속에 많이 있지만 체액이나 관절액 척수액 등에서 나올수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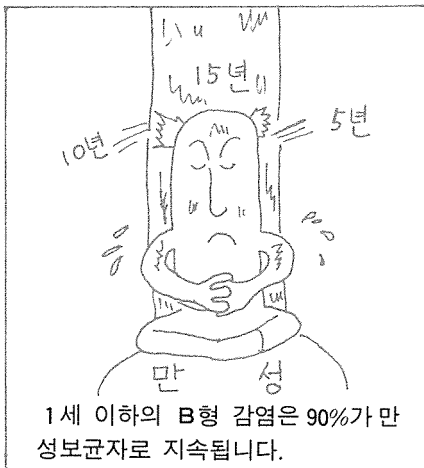
B형 바이러스는 생명력이 강하나 뜨거운 열에는 오래 견디지 못합니다.

검사결과, B형바이러스 음성인 사람은 B형바이러스 면역(免疫)여부에 따라 예방주사(B형간염백신)를 3회에 걸쳐 접종하여야 하며 B형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이 생겼다고 평생동안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3년에 한번은 검사를 통하여 B형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 여부를 확인해야하고 면역이 약화되거나 없어지면 재추가접종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문제시 되는것은 임신부나 신생아에게 오는 B형간염입니다. 그 이유는 B형간염에 걸린후 만성으로 보균자가 되는 율은 첫 감염시의 연령과 반비례 하는데, 성인보균자의 약40%가 출산시로 부터 1세 이하때에 감염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연구에 의하면 1세이하의 B형간염은 그 90%가 만성 보균자로 지속되고 이 만성보균자의 약40%가 30~40년 후에 간암으로 사망하고 15%는 간경변증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 간질환의 특징적인 증세는 ?

간질환의 증세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1. 황달(黃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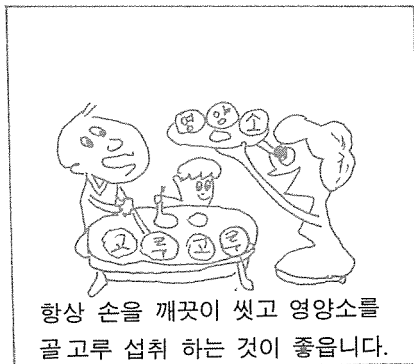
눈흰자위 및 피부가 노랗게 되고 소변 색이 진해집니다. 심하면 피부의 가려움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2. 전신증세(全身症勢)

전신 피로감이 쉽게오고 무력감이 생기며 구역질이나 소화불량과 입맛이 없어지고 오른쪽 윗배의 빠른통증이 생깁니다.

3. 복수(腹水)

간경변증때 올 수 있는 것으로 뱃속에 물이 차서 붓고 팔다리에 부종도 동반합니다.



4. 문맥압 항진증세(門脈圧亢進症勢)

식도정맥이 커져 정맥류를 만들고 대출혈을 일으켜 피를 토하거나 피똥을 누기도 합니다.

5. 간성혼수(肝性昏睡)

의식장애로 성격이나 지능의 이상이 오고 심하면 혼수에 빠지기도 합니다.

6. 간비대(肝肥大)

간이 붓는 상태입니다. 간경변및 간암일때 간의 표면이 울퉁불퉁(凹凸)하며 타이어 바퀴 모양처럼 단단하게 굳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외에도 아메바 및 독물등에 의한 간농양이 있는데 간부위에 심한 통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집에서

1. 집안에 만성간염환자가 있는 경우, 특히여자인 경우 배우자나 자식에게 전염이 됩니다.
2. 찌게나 국물김치등 한그릇에 담아서 서로 같이 먹는 경우
3. 면도기나 칫솔, 세수수건등을 집안 식구가 공용할 때.
4. 부부 한쪽이 환자일때 성생활로 전염되며 어머니가 아기에게 주는 모유 및 음식으로도 전염이 됩니다.

(건강한간장)

